

임성재 “매킬로이처럼… 언젠가 그린 재킷 입는 게 꿈”

개인 통산 세 번째 마스터스 ‘톱10’ 진입 “마인드 컨트롤 잘 돼… 보기에든 화 안 나”

남자 골프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공동 5위에 오른 임성재가 17년 만에 우승한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처럼 언젠가 그린 재킷을 입는 게 꿈이라고 밝혔다.

임성재는 14일(한국 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치러진 제89회 마스터스(총상금 210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4개, 보기 3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이로써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브라이언 디셔보(미국)와 공동 5위에 올랐다.

2020년 처음 출전한 마스터스에서 준우승한 임성재는 2022년 공동 8위 이후 3년 만에 개인 통산 3번째 톱10을 기록했다.

2번 홀(파5)에서 첫 버디를 잡은 임성재는 4번 홀(파3), 5번 홀(파4)에서 연속 보기를 범하며 주춤했다.

7번(파4)과 8번 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다시 분위기를 살린 그는 13번 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내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15번 홀(파5)을 파로 지나간 임성재는 16번 홀(파3)에서 한 타를 잃었으나, 17번 홀(파4) 버디로 톱10에 쫓겨를 바꿨다.

임성재는 경기 후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정말 좋은 한 주였다. 톱5에 든 건 내가 이 대회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골프 코스가 정말 어려웠지만 오늘은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집중해서 플레이할 수 있었다”며 “13번 홀에서의 이글은 단연 하이라이트였고, 마지막 홀 병커에서 파로 세이브한 것도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임성재가 13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89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 라운드 18번 홀 병커에서 샷하고 있다. 임성재는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다. /뉴스시스

그러면서 “오거스타에 다시 와서 플레이하게 돼 영광이었고, 내년에도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번 마스터스는 매킬로이가 연장 끝에 정상에 올라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17번째 마스터스 도전 끝에 거둔 짜릿한 우승이었다.

임성재는 “매킬로이가 오늘 자신의 꿈을 이뤘는데, 나도 언젠가 그린 재킷을 입는 꿈을 이룰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그때까지 더 발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회 기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한 임성재는 “작년에 샷 감각이 좋지 않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샷이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컷 통과했고, 첫날부터 언더파 스코어를 기록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돌아봤다. 이어 “오늘도 4, 5번 홀에서 연속 보기를 범해 출발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7, 8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1번 홀에서 중요한 파 세이브를 하며 자신감이 생겼고, 13번 홀 이글에 성공하며 큰 전환점을 맞았다. 두 번째 샷에서 뒤바람을 의식했는데, 원하는 곳에 떨어져 이글까지 기록했다. 이후로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임성재는 감정 조절을 잘한 것도 이번 대회에서 선전한 비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회 내내 스스로에게 화가 안 났다. 다른 대회에선 보기를 범하면 화가 났지만, 이번 대회에선 보기에 그쳐도 화를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균형이 잘 맞았다. 전체적으로 샷 감각이 좋았고 쇼트 게임도 만족스러웠다. 메이저대회 톱10에 올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마스터스를 성공적으로 마친 임성재는 오는 17일부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 헤드에서 열리는 시그니처 대회 RBC 헤리티지에 출전한다. /뉴스시스



영광군 출신 복싱챔피언 이우민, 1차 방어전 승리

2025 생활복싱대회 및 이우민 WBF 아시아챔피언 1차 방어전 성료

영광군(군수 장세일)에서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25 생활복싱대회 및 이우민 WBF 아시아챔피언 1차 방어전이 많은 관중의 성원과 이우민 선수의 승리로 화려히게 마무리됐다.

1부 생활복싱대회와 2부 프로복싱으로 나뉘어져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특히 영광군 출신의 아시아챔피언인 이우민 선수의 첫 번째 방어전으로 기대를 모았다.

프로복싱 경기에 총 5명의 선수를 출전시킨 채승곤 KO복싱클럽은 3승 1무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오픈 경기인 4라운드 4경기부터 불꽃튀는 펀치와 끊임없는 투지를 발휘하여 장내 400여 명의 관중들을 복싱의 매력에 푹 빠지게 만들었다.

또한 대회의 백미였던 메인이벤트인 아시아챔피언 이우민 선수(채승곤 KO복싱클럽)와 한국챔피언 유도일 선수(Y-GYM)의 WBF 웰터급 아시아

챔피언 1차 방어전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경기력을 선보이며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 선수들이 주먹을 뻗는 순간마다 관중들의 환호성과 탄식이 이어졌으며 10라운드를 끝까지 채우며 혈투를 벌인 두 선수는 결국 KO승부를 내지 못해 판정까지 갔지만 3:0 완승으로 이우민 선수의 1차 방어가 성공하며 성원 속 대회가 마무리되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우리 군이 낳은 복싱챔피언 이우민 선수의 1차 방어전이 승리로 마무리 되어 영광군민의 일원으로서 가슴이 벅차고 자랑스러우며 이우민 선수가 장차 더욱 강해져 세계로 뻗어나가 우리 영광군의 자력을 널리 알렸으면 한다.”라고 축하 소감을 말했으며, “앞으로도 유망한 종목과 선수육성, 대회유치에 힘써 제2, 제3의 이우민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영광/이현식 기자

명예문화관광축제

함평제27회

함평 나비 대축제

2025 4.25.금 - 5.6.화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주최 | 임영군 주관 | 함평국제관광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전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K-GATE 한국관광학회 대한관광진흥협회



제37회 무등기 전국 배구대회 개막식이 13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하나운동화스포츠센터의 보조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무등일보 제공

무등기 전국 배구대회, 신흥강자 vs 기존 강호 정면 승부

전남 화순에서 열린 제37회 무등기 전국배구대회에서 신흥 강자들과 기존 강호들의 정면 승부가 펼쳐졌다.

대회 첫 출전한 광양백운초가 깜짝 우승을 달성했고, 왕좌를 지키기 위해 나선 광주썬클럽·문정초 등은 이번 없이 우승기를 흔들었다.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전남 화순군 하나운동화스포츠센터 일대에서 제37회 무등기 전국배구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어린이 남자부, 어린이 여자부, 여자클럽부, 교직원부 등 4개 종별로 치러졌다.

어린이 남자부는 1개팀, 어린이 여자부는 2개팀, 여자클럽부 13개팀, 교직원부 24개팀 등 총 40개팀이 출전해 우승기를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교직원부 우승은 다크호스로 떠오른 백운초의 몫이었다. 백운초는 대회 첫 출전이었지만 탄탄한 조직력과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결승전에서는 대회 3연패를 노리는 광양중진초를 만나 2대0으로 제압했다.

다크호스 광양백운초 첫 출전에 우승

광주썬클럽·문정초 왕조 굳건히 다져

부산사하초는 출전 2년 만에 정상

여자 클럽부는 썬클럽이 우승했다. 썬클럽은 강력한 우승후보 광주 V-queen을 누르고 결승까지 올라온 아리바리오와 최종전을 펼쳤다. 대결은 2대1로 썬클럽의 승리로 끝이 났다. 썬클럽은 대회 3년 연속 우승을 달성하게 됐다.

어린이 남자부는 올해도 출전한 문정초가 2년 연속 왕좌를 지켜냈다. 6명만 참가한 문정초는 대회 참석한 40개팀 중 가장 적은 수였지만 투혼을 발휘하며 승부를 벌였다.

어린이 여자부는 부산사하초가 첫 우승을 차지했다.

무등기 전국 배구대회 출전 2회만에 정상의 감격을 맛봤다.

이밖에 심판상은 조선희·강영완 대한배구협회 심판이 받았고, 공로상은

윤충걸 광주시배구협회 심판이사와 공동 광주시배구협회 총무이사가 수상했다.

조석현 SRB미디어그룹 회장은 14일 “무등기 전국 배구대회는 오늘날 37년 동안 배구 꿈나무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큰 취지에 맞게 지역민과 함께 웃고 함께 뛰면서 청장년기로 성장하고 발전해왔다고 자부한다”며 “매년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도록 응원해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국무등기배구대회는 무등일보와 엠디에스앤씨가 주최하고, 광주시배구협회와 화순군배구협회가 주관하며, 광주시·전남도·화순군·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광주시체육회·전남도체육회·화순군체육회가 후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